

日本석유업계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향

I. 석유업계의 최근 경영실적

최근 日本석유연맹은 '87년도('88년도 3월 결산) 石油 10社의 결산자료를 집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은 판매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10社 합계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였다. 판매량은 내수확대에 따른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A중유등의 경질제품을 중심으로 건

실하게 늘어난데 힘입어 2.7% 증가하였다.

원유가격은 期末에 와서는 하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추이하였으며, 또한 환율도 期中반경에서 부터 엔高경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期中의 석유제품 상황은 엔고지속, 원유가격의 약세등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등유, 경유 등의 中間溜分을 중심으로 期 후반부터 하락을 계속하는 등 적정한 제품시황이 형성되지 않았다.

'87년도 日本 석유 10社의 경영실적('88. 3월말 결산)

(단위 : 億円)

	매출액			판매량			經常利益		
	1987	1986	전년대비	1987	1986	전년대비	1987	1986	전년대비
出 光	15,521	15,292	1.5	45,755	42,740	7.1	161	73	120.9
日 石	17,258	17,263	△0.0	46,649	44,859	4.0	288	197	46.2
東 亞	279	257	8.4	0	0	-	13	9	46.7
興 亞	1,833	1,884	△2.7	7,906	8,003	△1.2	46	3	1,418.7
코 스 모	12,976	13,843	△6.3	36,080	37,312	△3.3	165	154	7.4
共 石	13,195	13,554	△2.7	35,969	34,649	3.8	111	27	313.3
키 그 나 스	2,689	2,734	△1.6	5,448	5,410	0.7	26	48	△45.9
九 石	2,526	2,616	△3.4	8,787	8,429	4.2	42	38	10.7
三 石	6,717	6,568	2.3	16,776	16,474	1.8	132	124	7.1
제 너 럸	4,460	4,387	1.7	12,070	11,999	0.6	113	45	153.3
10 社 計	77,454	78,398	△1.2	215,440	209,875	2.7	1,097	718	53.0

한편 전년동기에 수익의 압박요인이 되었던 高價재료의 해소, 차입금의 감소 및 금리의 하락에 의한 금융수지의 개선, 경비절감, 생산 및 수송의 효율화 등 부단한 경영합리화의 추진등으로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379억円이 증가하였다.

石油10社의 매출액경상이익율은 1.42%, 자기자본 비율은 12.83%인데 반해 제조업 평균('86년도) 매출액 경상이익율 3.59%, 자기자본비율 33.27%로 되어 있어, 石油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산업은 향후에도 1차에너지 공급의 대중을 차지하

는 石油의 안정공급확보라는 사명을 담당할 것이다. 그 석유산업이 '87년도의 결산을 보더라도 체질의 취약성은 분명하다. 석유10社の '87년도 결산에서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1.42%, 자기자본비율은 12.83%인데 비해 '86년도 제조업 평균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3.59%, 자기자본비율은 33.27%이다. 이처럼 석유산업의 수익수준은 지극히 낮고 불안정하며, 또한 기업체질도 취약하다. 석유산업의 일정수익 수준을 확보하여 기업체질의 개선강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등유, 경유, A중유 등 중간유분 시장의 하락이며, 이들 유종의 시장하락이 없었다면, 결산이 보다 호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석유각사는 「세어보다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매시책을 확립하여 체질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7년 결산은 대체로 수익은 전년대비 크게 호전되었으나, 대량판매 유종의 상황이 조금만 좋아졌다면 결산내용은 더욱 충실했을 것이다.

石油의 매출액 규모는 매우 크다. 그러나 수익면에 있어서는 아직 타산업에 비하여 매우 낮다. 이를 극복하고 체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타튼 업계의 판매자세로서 「세어보다 수익」을 명실상부하게 추구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금융기관 소식통에 의하면, '88년도는 석유세 인상이나 휘발유 PQ제의 폐지라고 하는 큰 수익악화 요인이 있어 이에 의한 수익감소는 피할 수 없으나, 増稅分 전가가 이루어져 현재의 말단상황이 PQ 폐지시까지 유지된다면, 업계전체에서 2,000억円 정도의 경상이익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혼란에 의한 심각한 사태는 오히려 '주유소 전설 자유화가 실시되는 '89년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더 한층의 합리화에 착수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를 반영하여 점차 국제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설비 폐기를 필두로 인원정리 등 일찌기 산업계가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의 급격한 합리화 추진이다. 석유업계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파나는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면에서는 석유업계와 타산업간에 큰 격차가 있다. 타산업에서는 합리화에 의한 성과가 그대로 수익에 나타나지만, 석유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격차는 제품시황 그 자체의 차이에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 타산업의 경우 수출가격은 하락하고 있으

나, 국내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석유는 시황이 저조하다.

석유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타산업에서는 석유업계가 무리하게 인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低收益에 시달려도 타산업으로 부터 동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동일한 합리화 노력을 하더라도, 한편은 결산실적이 좋아 이윤이 많고, 다른 한편은 부득이 변함없는 저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석유업계도 본격적으로 합리화 노력이 보답을 받을 수 있는 판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산업처럼 제품시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연간 3조 2천억엔이라는 거액의 석유세제, 이밖에 통상제고(45일본)를 초과하는 비축에 소요되는 약 1천 5백억円의 연간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설비능력에 따른 대응

석유산업 기본문제 검토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한 규제완화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 것은 설비허가제의 탄력화다. 여기에서 극복되는 것은 점축계질장치, FCC(점축분해장치) 등의 2차 설비를 정제, 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86년도말에 114만 4,050b/d이던 2차 설비능력이 현재에는 131만 6,500b/d에 달하고 있다. 17만 2,450b/d가 증설된 것이다. 이 결과 2차 설비비율도 '86년도말의 24%가 28%로 높아졌다.

각사의 2차 설비능력은 塚算油鍾인 휘발유 증산, 특히 高옥탄 대책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경영기반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설비증설과 동시에 원매각사가 주유소의 대형화를 계열지도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규제완화의 냉엄한 환경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유소의 휘발유 월간 판매량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설비증설에 따른 판매확대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규제완화 주요설비인 Topper의 능력은 '87년도에 16만 5천b/d의 파잉설비를 처분하여, '87년도 말에 459만 6,610b/d가 되었다. 이 결과 '87년도의 상압증류설비 가동율은 60.9%로 전년보다 1.0포인트가 상승하였다. '87년도의 가동률은 상반기에 56.1%, 하반기에 66.0%였다.

'88~'92년도 석유공급계획에 근거한 최종연도인 '92년도의 Topper 소요능력은 406만 9천b/d로 '87년도 말의 동 장치능력 459만 6,610b/d에 비해 5년간 52만 7,610b/d가 과잉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제2차 과잉설비처분은 금년도가 최종연도이며, Topper합리화는 금년에 막을 내리게 된다.

석유공급계획에 기초한 향후 5년간의 Topper소요능력은 내수전망을 기준으로 한 소요원유처리량에 적정가동율을 80%로 하여 계산된 것이며, 이 계산에 의한 Topper 소요능력은 '88년도 397만 6천b/d, '89년도 406만 3천b/d, '90년도 404만 6천b/d, '91년도 404만 3천b/d, '92년도 406만 9천b/d이다. '92년도의 소요능력이 가장 많으나, '87년도말 능력이 459만 6,610b/d이며, 향후 5년간 62만 610~52만 7,610b/d의 능력이 과잉이 된다.

과잉설비 처분은 2년전 IEA 각국 이사회의 합의사항이다. 그런만큼 에너지廳으로서도 조속히 계획을 실천하고 싶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할 것인지 현시점에서는 불명하지만, 각사는 이에 불구하고 설비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과잉설비 처리를 각사의 자주적 판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라면 좋지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Ⅲ. 규제완화에 따른 석유업계의 동향전망

1. 美國 石油專門誌의 분석

美國의 어느 석유전문지는 최근호에서 PQ폐지의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정부 및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日本의 석유업계에서 최대의 규제인 휘발유 PQ제가 폐지된다면, 국내 제품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석유회사의 움직임이 싱가포르를 필두로 해외 제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일단 확대될 것이다.

PQ제가 폐지된다면 지금까지 증산에 의한 공급과잉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온 생산억제 제도는 향후 없어질 것이며, 정제회사의 증산의욕은 금년 가을부터 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PQ폐지 후 日本의 휘발유 시장의 급락의 방지책은 '원유처리량'에 의존하게 될 것이지만, 원유처리량의 억제만으로는 휘발유 收率의 대폭

인상, 중간유분으로부터의 휘발유 생산움직임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휘발유 생산은 사실상 크게 늘어날 것이다. 만약 중간유분이 부족하다면, 해외로부터 값싼 제품의 조달도 가능하여, 이러한 움직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日本의 제품판매 업계의 과당경쟁의 격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지만, 휘발유 PQ폐지로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정제, 원매회사는 정리, 통합될 것이지만, 감독관청인 통산성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석유회사의 재편 및 합병을 지도하여 최종적으로 석유업계 전체의 합리화와 효율향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日本의 현재 휘발유 시장은 자유화의 先取와 해외 제품시장의 軟化영향을 받아 하락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석유회사는 향후, 대폭적인 마진(정제 및 판매 이익)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하고 있다. 통산성의 석유소식통 마저도 사태의 추이를 전망하기는 곤란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다.

어느 정제, 원매회사에 의하면, 자유화에 의한 석유업계 전체의 이익감소는 k당 10円이 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일부 석유회사는 이들 손실의 일부는 중간유분의 가격인상에 의해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동시에 업계 전체에서 일제히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獨禁法에 저촉될 우려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日本의 독금법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日本에서는 정제, 판매업계의 규제완화에 따라 영업효율의 조속한 개선이 至上命題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원매회사는 소매부문의 투자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10억달러(약 1,250억円)를 계획하고 있다.

2. 通産省 간부(復數)의 주목되는 발언

향후 석유업계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서 다음 세가지 점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선 규제적인 면에서 보면, 석유산업은 규제완화 노선에 따라서 추운 날씨에 외투와 세터를 벗어도 감기를 걸리지 않도록 강한 체질로 개선하려고(강한 자만이 생존한다)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산유국 및 메이저와 동일한 입장에서 경쟁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수입의 완전자유화로 판단하고 日本에 대한 제품수출을 위한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전보장상 아무나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원이 없는 일본의 현실을 설명하더라도 쉽사리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2) 국내에서는 석유업계와 石油를 사용하는 기타 산업과의 관련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와 같이 석유회사는 휘발유에서만 이익을 내고 경유나 등유에서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은 통용되지 않아 경유와 등유가격의 개선(이익 확보)이 필요하다. 최근 개최된 버스, 트럭업계와 석유업계의 간담회(경유)에서도 그랬으며, 제지업계와의 간담회(중유)에서도 그랬지만, 쌍방의 의견을 들어 보면 불신감뿐이며 상호이해가 없어 수요업체로부터는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석유업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석유가격도 비교적 낮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라면 이미지형성도 이루기 쉬울 것이다. 원자력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이 시기에 폭넓은 이해를 수요업체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통산성은 휘발유의 시황이 '89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PQ의 폐지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1당 20엔의 가격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휘발유의 수요는 연간 3,800만 kl이므로 업계전체에서 7,600억円の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試算이 된다.

석유정제와 원매회사의 경상이익 총액은 최근 수년간 2,400억엔 수준이었다. 따라서 1당 20円은 고사하고 10円의 시황만 악화되더라도 업계전체가 적자를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단계로서 PQ의 부활론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규제완화에 대한 美國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IV. 석유업계의 대응

석유업계는 현재 8월부터의 石油稅 증세를 앞두고 여하히 제품에 전가할 것인지 부심하고 있다. 石油稅가 증가세(4.7%)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2,040円/kl로 종전의 2배이상으로 인상되었다. 업계에서는 이 증세분을 가격인상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휘발유의 경우 1당 2円 정도의 인상을 추진할 의향이다. 또한 7월 후반부터 8월까지 여름의 최성수기를 맞고 있다. 이 수요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승을 위해서도 판매경쟁, 세어경쟁을 일시 보류하고 가격유지 하나를

위한 판매에 철저히 않으면 안된다.

석유제품의 가격이 높다고 지적된 것은 현재로서는 일체 없다. 단 공급자측인 石油판매업계가 스스로 경쟁하여 가격이 싸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손해의 절반은 원매회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석유업계는 스스로 경쟁하여 가격을 하락시켜, 경영의 취약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로부터 이 정도에서 탈피하고, 정비된 유통시장을 업계 스스로의 자유기능에 따라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東京 소방청의 조사에 따르면, '88년도 중 東京시내의 주유소 감소수는 98개소이며, 감소폭은 과거 최대 수치이다. 통산성에 의한 전국 통계에서도 '84년 3월말 59,329개소로 피크를 감소로 반전되어 매년 감소폭은 5개소, 240개소, 350개소로 확대되는 한편, 작년도 말에 58,500개소를 밀리게 되었다. 과거 3년간의 감소숫자는 1,000개소를 넘고 있다.

'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 歐美 선진 각국의 주유소가 30~50% 격감하는 가운데, 日本만이 증가하거나 옆걸음질을 계속해왔다. 사별 생산지도나 주유소 신설규제에 의한 보호행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도 후반부터 이들 규제는 순차적으로 철폐된다. 수입원인 휘발유의 이윤감소 등 냉혹한 자유경쟁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원매회사의 생존이 걸린 코스트 경쟁력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원매각사는 배달이나 인건비의 코스트 삭감을 위해 중점지구에서는 개조·신설에 의한 대형화나 레이아웃의 효율화, 24시간 영업 등에 따라 1개 주유소당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개선의 전망이 없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적자보전 등 경영보조금의 삭감이나 중단 등 과감한 통폐합에 의한 자사 판매망의 재편성에 착수하고 있다.

원매각사의 공통적인 계열대응으로서는 ① 계열하의 중점(核心) 특약점의 선별, ② 주유소 운영의 효율화·다각화 추진, ③ 자유화에 대응한 계열 경영자, 종업원의 교육강화 등을 공통과제로 삼고 있다.

특약점, 판매점 관계가 되면, 「자유화 도입 이후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이 많으나(중소특약점), 또한 한편으로 「자유화야 말로 판매업자가 원매를 선택하는 시대」 「조건이 좋은 원매와의 복수구매로 생존한다」(대규모 특약점)라고 투지만만한 대기업군도 있다.

자원에너지廳은 이번의 새로운 소비세문제의 경과에서 「석유산업도 기간산업으로서의 대응도 변화여 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기 위해 이르렀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증권과 같이 세부담이 크다는가, 비축 등 정부의 시책

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사고방식에서 자원에너지청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순간 석유정책>

□ 석유단신 □

사우디, 日本과 長期·安定的 原油供給 希望

사우디는 日本과 長期的·安定的인 원유공급관계를 樹立하기를 希望하고 있으나, 이는 日本政府의 國內石油産業規制緩和(deregulation) 政策推進에 배치되어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New의 石油展門家인 Peter Greiff氏가 AP通信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다.

'85년까지 사우디는 日本 제1의 原油供給國이었으나 사우디의 상대적으로 경직된 價格政策으로 그 이후 UAE가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되었다.

사우디는 日本 제1의 原油供給國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日本과 장기적 공급관계 樹立을 希望하고 있으나, 이것은 곧 日本政府의 개입을 의미하게 되어 規制緩和政策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業界에서는 사우디가 세계매장량의 1/4을 保有하는 産油國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日本이 사우디와의 장기적 關係樹立은 필수적이라는 견해

도 沸騰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는 日本市場에의 安定的 供給確保를 위해서 日本 하류部門에 進出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日本의 中東經濟研究所 Hatanaka氏는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사우디가 대상으로 삼을 최적 기업은 Mitsubishi Oil社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同社가 사우디와 기간계약관계(10萬 b/d)를 맺고 있을뿐 아니라, 사우디와 밀접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하류部門 進出도 日本 國內石油産業 競争力提高라는 側面에서 日本政策에 위배되겠지만 日本政府는 공급위기사우디의 원유공급보장을 條件으로 사우디의 持分取得을 許容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業界는 보고 있다. □

(주간석유뉴스)

